

25-10(통권 989호) 2025.06.25

경제주평

■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

- 외국인 관광객 유입의 국내소비 활성화 효과와 시사점

목 차

■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

- 외국인 관광객 유입의 국내소비 활성화 효과와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외국인 관광객 및 관광수입 현황	2
3. 2025년 전망	4
4. 시사점	6
< 참고 > 국가별 해외여행 지출 규모	8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제 연 구 실 : 노 시 연 연 구 위 원 (2072-6248, syroh@hri.co.kr)

Executive Summary

□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

- 외국인 관광객 유입의 국내소비 활성화 효과와 시사점

■ 개 요

한국경제는 지난해 말부터 민간소비 증가세와 국내소비 증가세가 역전되는 등 외국인 소비 증가세 지속에 의한 국내소비 확대가 내수경기 회복은 물론 체감경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2024년 4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2분기 연속 민간소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면서 국내소비 증가세를 하회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외국인 국내소비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국내 서비스업(숙박 및 음식점업, 소매업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내수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보고서는 외국인 국내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관광수입)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경제(소비)에 미칠 영향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 외국인 관광객 및 관광수입 현황

외국인 관광객 수는 관광산업의 정상화와 함께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하였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2024년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약 94% 수준까지 회복하였다. 2025년(4월 누계 기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동기비 14.6% 증가한 558만 명으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일본, 미국, 대만 등에서 주로 방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관광객의 비중은 하락세이나, 2025년 4월 누계 기준 28.1%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일본인 관광객으로 전체의 18.7%를 기록하였다. 한편, 주요국(중국, 일본, 미국, 대만)을 제외한 국가의 비중은 여전히 30%대 수준을 유지, 외국인 관광객의 특정 국가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관광수입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인 관광수입은 2024년 전년비 9.2% 증가한 164.5억 달러, 2025년(4월 누계 기준) 전년비 18.6% 증가한 56.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관광수입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2024년 기준 관광수입이 2019년의 약 79% 수준에 머무르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이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영향으로 원/달러 연평균 환율을 활용하여 관광수입을 원화로 환산한 결과, 2024년 관광수입은 2019년의 약 93%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하였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원화 기준)은 146.2만 원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하였다.

■ 2025년 전망

① 분석 방법

1990~2024년 미국·중국·일본의 1인당 실질 GDP, 실질실효환율,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 등을 활용하여 2025년 외국인 관광객 및 관광수입 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 모형은 종속변수로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를, 설명변수로 종속변수의 시차

변수, 외국인 관광객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3개국(미국, 중국, 일본)의 1인당 실질 GDP 연평균, 월별 실질실효환율의 연평균, 코로나19 더미변수 등을 고려하였다. 한편, 2025년 관광수입은 앞서 추정한 2025년 외국인 관광객 수와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 분석 모형 및 변수 >

$$\ln NTOUR_t = \beta_0 + \beta_1 \ln NTOUR_{t-1} + \beta_2 \ln GDP_t + \beta_3 \ln REER_t + \beta_4 COVID_t + u$$

변수명	설명	출처
<i>NTOUR</i>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	한국관광데이터랩
<i>GDP</i>	미국·중국·일본의 1인당 실질 GDP 연평균	IMF
<i>REER</i>	월별 실질실효환율(협의)의 연평균	BIS
<i>COVID</i>	코로나19 더미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② 분석 결과

2025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소비를 2.5%p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 결과, 2025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역대 최고치인 2,009만 명으로 이에 따른 관광수입은 202.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화 기준 2025년 관광수입은 29.4조 원으로 이는 2024년 명목 국내 소비 규모인 1,167.8조 원의 2.5%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 및 관광수입 증가로 국내소비가 2.5%p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이며, 직·간접적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전반적인 내수경기 진작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국인 국내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 증가는 국내 소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 결과 >

구분	추정치
외국인 관광객 수	2,009만 명
관광수입(달러 기준)	202.5억 달러
관광수입(원화 기준)	29.4조 원
국내소비 대비 관광수입 비중(명목)	2.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현재 한국경제는 저성장 우려 탈피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외국인 관광객 유입 및 관광수입 증대를 통해 소비 회복 기반을 확충, 내수경기 전반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첫째,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에 안주하지 말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 및 관광수입이 지속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관광 수요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여 전국 단위의 균형 있는 관광 소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관광 수요 확대와 함께 관련 일자리 창출을 적극 연계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대해야 한다.

1. 개요

○ 한국경제는 지난해 말부터 민간소비 증가세와 국내소비 증가세가 역전되는 등 외국인 소비 증가세 지속에 의한 국내소비 확대가 내수경기 회복은 물론 체감경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 최근 민간소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면서 국내소비 증가세를 하회

· 2024년 4분기 및 2025년 1분기 민간소비(실질) 증가율은 각각 전년동기비 1.1%, 0.6%로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

· 반면, 국내소비(실질)는 2024년 4분기 및 2025년 1분기 각각 전년동기비 1.3%, 0.8% 증가하며 2분기 연속 민간소비 증가율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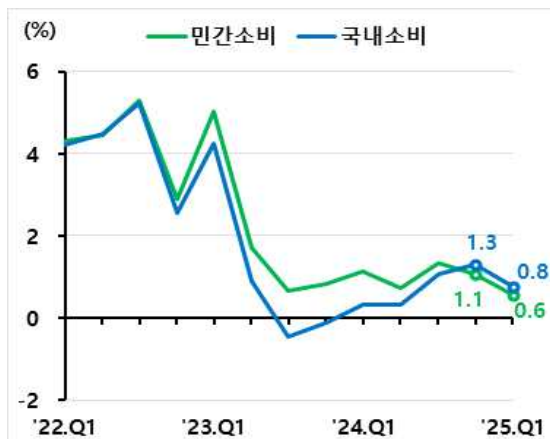
- 이는 외국인 국내소비 증가가 큰 원인으로 향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유지된다면 내수 부진 완충 효과는 물론 체감경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국내소비는 민간소비에서 순국외소비(내국인 국외소비-외국인 국내소비)를 차감한 값¹⁾으로 최근 외국인 국내소비가 증가하면서 국내소비 증가율이 민간소비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판단

· 국내소비가 민간소비보다 국내 서비스업(숙박 및 음식점업, 소매업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내수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 이에 외국인 국내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관광수입)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추정해 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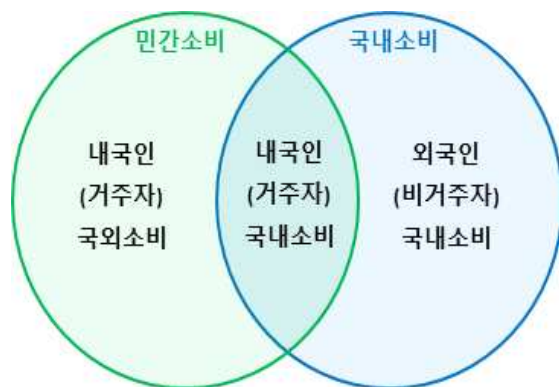
< 민간·국내소비 증가율(실질) >



자료 : 한국은행.

주 : 원계열 전년동기비 기준.

< 민간소비와 국내소비 비교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1) 민간소비에는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도 포함되나, 그 비중이 크지 않아 분석 편의상 제외.

2. 외국인 관광객 및 관광수입 현황

○ 외국인 관광객 수는 관광산업의 정상화와 함께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2024년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약 94% 수준까지 회복
 - 관광 시장의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2024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비 48.4% 증가한 1,637만 명을 기록
 - 이는 역대 최대 외국인 관광객 수를 기록하였던 2019년의 약 94% 수준
 - 2025년(4월 누계 기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동기비 14.6% 증가한 558만 명으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 국가별로 보면 중국, 일본, 미국, 대만 등에서 주로 방한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인 관광객의 비중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5년 4월 누계 기준 28.1%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인 관광객은 전체의 18.7%를 기록
 - 대만인 및 미국인 관광객의 비중 또한 증가세를 지속하며 2025년 4월 누계 기준 각각 9.8%, 7.7%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주요국(중국, 일본, 미국, 대만)을 제외한 국가의 관광객 비중은 여전히 30%대 수준을 유지,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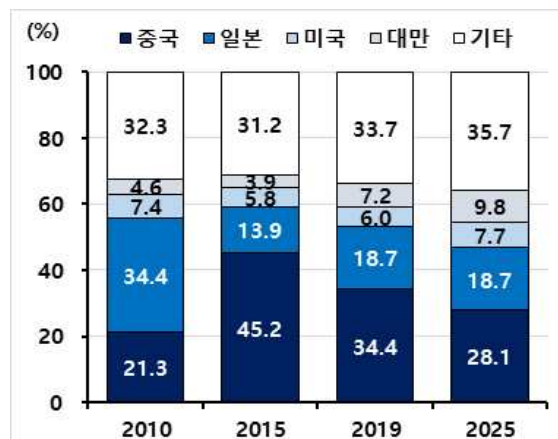
< 외국인 관광객 규모 및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 주1) 증가율은 전년비 기준.
주2) 2025년은 4월 누계 기준.

< 국가별 외국인 관광객 >



자료 : 통계청.

주 : 2025년은 4월 누계 기준.

○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관광수입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인 관광수입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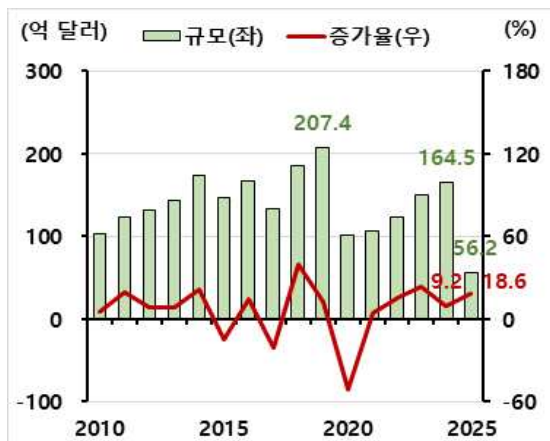
-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관광수입은 2024년 전년비 9.2% 증가한 164.5억 달러, 2025년(4월 누계 기준) 전년비 18.6% 증가한 56.2억 달러를 기록
- 관광수입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2024년 기준 관광수입이 2019년의 약 79% 수준에 머무르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에는 미치지 못함
- 다만, 이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영향으로 원/달러 연평균 환율을 활용하여 관광수입을 원화로 환산한 결과, 2024년 관광수입은 2019년의 약 93%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 관광수입(조 원): ('10) 11.8 → ('15) 16.6 → ('19) 24.2 → ('24) 22.4

- 한편,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²⁾(원화 기준)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및 2025년(4월 누계 기준)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은 각각 1,005.2달러, 1,008.3달러로 2019년보다 낮은 수준
- 하지만 원화로 환산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 1인이 지출하는 평균 금액은 2025년(4월 누계 기준) 146.2만 원으로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

< 관광수입 규모 및 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 주1) 증가율은 전년비 기준.
- 주2) 2025년은 4월 누계 기준.

<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주1) 원/달러 연평균 환율을 활용하여 환산.
- 주2) 2025년은 4월 누계 기준.

2)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 = 관광수입 / 외국인 관광객 수

3. 2025년 전망

① 분석 방법³⁾

○ 미국·중국·일본의 1인당 실질 GDP, 실질실효환율,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 등을 활용하여 2025년 외국인 관광객 및 관광수입 규모를 추정

- 1990~2024년 미국·중국·일본의 1인당 실질 GDP, 실질실효환율 등을 활용하여 2025년 외국인 관광객 수를 추정

-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NTOUR_t$)를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 시행
- 설명변수로는 종속변수의 시차변수($NTOUR_{t-1}$), 외국인 관광객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3개국(미국, 중국, 일본)의 1인당 실질 GDP 연평균(GDP_t), 월별 실질실효환율의 연평균($REER_t$),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한 점을 반영하기 위한 더미변수($COVID_t$) 등을 고려
- 2025년 미국·중국·일본의 1인당 실질 GDP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April 2025)의 전망치, 2025년 실질실효환율은 2025년 1~4월 평균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 가정하여 2025년 외국인 관광객 수를 추정

$$\ln NTOUR_t = \beta_0 + \beta_1 \ln NTOUR_{t-1} + \beta_2 \ln GDP_t + \beta_3 \ln REER_t + \beta_4 COVID_t + u_t$$

< 분석 변수 >

변수명	설명	출처
$NTOUR$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	한국관광데이터랩
GDP	미국·중국·일본의 1인당 실질 GDP 연평균	IMF
$REER$	월별 실질실효환율(협의)의 연평균	BIS
$COVID$	코로나19 더미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앞서 추정한 2025년 외국인 관광객 수와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을 활용하여 2025년 관광수입을 추정

- 2025년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이 2025년 1~4월과 유사한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 가정하여 2025년 관광수입을 계산

3) 차경수·박민수(2019), 부산방문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1(2), 811-826. 참고.

② 분석 결과

- 2025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소비를 2.5%p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분석 결과, 2025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9만 명으로 이에 따른 관광수입은 202.5억 달러일 것으로 전망됨
 - 2025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역대 최고치인 2,00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 2025년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이 1,008.3달러(2025년 4월 누계 기준)라 가정하면 관광수입은 202.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원화 기준 2025년 관광수입은 29.4조 원으로 이는 국내소비의 2.5% 수준
 - 2025년 원/달러 연평균 환율을 1,450.2원(2025년 1~4월 평균)이라 가정하여 원화로 환산할 경우, 관광수입은 29.4조 원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24년 명목 국내소비 규모인 1,167.8조 원의 2.5%에 해당
 - 이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 및 관광수입 증가로 국내소비가 2.5%p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이며, 직·간접적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내수 진작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특히, 내국인 국내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 증가는 국내소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추정 결과 >

구분	추정치
외국인 관광객 수	2,009만 명
관광수입(달러 기준)	202.5억 달러
관광수입(원화 기준)	29.4조 원
국내소비 대비 관광수입 비중(명목)	2.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국내소비 대비 관광수입 비중(명목) >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1) 관광수입은 원/달러 연평균 환율을 활용하여 환산.

2) 2025년은 2024년 국내소비 대비 비중.

4. 시사점

- 현재 한국경제는 저성장 우려 탈피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외국인 관광객 유입 및 관광수입 증대를 통해 소비 회복 기반을 확충, 내수경기 전반의 개선을 도모해야 함

첫째,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에 안주하지 말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 및 관광수입이 지속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은 단순한 관광수입을 넘어 숙박, 음식, 교통 등 다양한 내수 분야로 연계되며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만큼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안정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K-콘텐츠 등을 활용한 국가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해야 하며, 특정 국가 관광객 의존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
- 특히,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관광객이 해외여행에 지출을 많이 하는 만큼(< 참고 > 국가별 해외여행 지출 규모)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맞춤형 홍보를 진행한다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
- 또한, 결제 편의성 제고, 주요 관광지에 대한 다국어 안내 시스템 구축, 비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임

둘째, 관광 수요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여 전국 단위의 균형 있는 관광 소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2024년 외래관광객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방문 비율은 78.4%로 여타 지역(부산 16.2%, 경기 10.0%, 제주 9.9%)에 비해 높은 수준

- 관광 수요를 분산한다면 지역 단위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교통 접근성 개선 등 지역 관광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 지역축제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확대 등이 필요함

셋째, 관광 수요 확대와 함께 관련 일자리 창출을 적극 연계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대해야 한다.

- 관광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 유발 계수가 높은 산업으로 관광 활성화는 단기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중장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관광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 지원, 관광 관련 직무 훈련 프로그램 강화, 관광 가이드 등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필요
- 특히,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이 관광산업 내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 및 직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HRI**

노 시 연 연 구 위 원 (2072-6248, syroh@hri.co.kr)

< 참고 > 국가별 해외여행 지출 규모

- 해외여행 총지출액

-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해외여행 지출 규모가 큰 국가는 미국, 중국, 독일 순임
- 특히, 미국과 중국의 해외여행 총지출액은 1,0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여타 국가에 비해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한국의 해외여행 총지출액은 199억 달러로 2022년 기준 11위를 차지

- 해외여행 1인당 지출액

- 해외여행 총지출액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지출액은 영국, 독일, 캐나다 순으로 규모가 큼
- 한국의 해외여행 1인당 지출액도 385달러로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해외여행 지출 규모 >

순위	국가	총지출액(억 달러)	인구(만 명)	1인당 지출액(달러)
1	미국	1,153	34,153	338
2	중국	1,148	142,518	81
3	독일	883	8,409	1,050
4	영국	817	6,818	1,198
5	프랑스	409	6,628	617
6	이탈리아	269	5,962	451
7	인도	259	142,542	18
8	캐나다	247	3,882	636
9	스페인	211	4,783	440
10	러시아	203	14,558	139
11	한국	199	5,178	385

자료 :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 국제연합(UN),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2년 기준.